'오스템임플란트' 담은 펀드 수두룩… 투자자 불똥 '걱정'

오스템 담은 국내 펀드 160개
'TIGER의료기기' 비중 7%
거래 재개시 자금 엑시트 우려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뉴시스

직원 횡령 사태로 거래정지되면서 오스템임플란트를 담은 펀드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회사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며 시가총액 2조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닥150 편입 종목으로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가 다수다.

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국내 펀드는 106개에 달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도 다수 포함됐다. 'KODEX 코스닥150'(1.23%), 'TIGER 코스닥150'(1.21%)을 비롯해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여러 ETF에 오스템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다.

이 가운데 테마형 ETF 중 '미래에셋 TIGER의료기기'와 '미래에셋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가 오스템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

'TIGER의료기기'가 가장 많이 편입한 종목은 오스템임플란트다. 이 펀드는 의료장비에 집중 투자하는 유일한 ETF다.

특히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TF 'TIGER 의료기기'는 오스템임플란트를 7.09% 담았으며 이는 전체 자산의 7.83% 수준이다.

씨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를 각각 10.05%, 9.17% 담고 있어 세번째로 비중이 높다.

아울러 'TIGER코스닥150바이오테크'도 3.72% 비율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TIGER 의료기기'는 에프앤가이드 의료기기 지수를, 'TIGER 코스닥150 바이오테크'는 코스닥150 생명기술 지수를 각각 추종한다.

가장 많은 자금 규모가 담긴 펀드는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공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시총이 2조원이 넘어 상당수 펀드가 담고 있겠지만 비중이 크진 않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다만, 펀드 투자에서 ESG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으며 거래 재개 시점까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영업일 기준 20~35일간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고 여기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찾아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총 횡령액 1880억원 중 1500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일 횡령 직원인 이씨가 체포된 가운데 회사 측은 긴급 상황대책반을 꾸려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고승범 "사법절차 별개로 증시교란 등 살펴볼 것"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신년회동서 사태 언급
"필요한 조치 있다면 고려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신년회동을 마친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의 교란행위, 투자자보호 등의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신년회동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회사의 자금 부장이었던 이 모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880억원을 횡령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 교란 행위 문제나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정 감독원장과 만나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도 작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 오는 3월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 금융사와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

고 위원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긴축기조와 관련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앞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보강·배치해 금융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승인돼 올해 인력이 80명 충원되고, 금융데이터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 감독원장은 "인력과 조직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CFO·은행 지점장 등 도움없이 단독으론 어려워"

>> 1면 '내부통제 소홀'서 계속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9월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오스템임플란트가 보유한 유동자산 대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비중은 42.8%로 집계됐다. 유동자산 대비 단기금융상품의 비중은 6.4%다.

같은 기간 다른 임플란트 회사들의 유동자산 대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덴티움 25.9% ▲네오바이오텍 21.2% ▲디오 14.5% ▲덴티스 13.4% ▲메가젠임플란트 13.1% 등의 순이다. 통상 10~20%대를 유지하는데 비해 오스템임플란트는 두배에 달하는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횡령금액이 1880억원이란 말은 회사 통장에 그 규모의 금액이 들어있어야 가능하다"며 "단기금융상품도 아니고 현금을 그대로 1800억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회사 측의 주장대로 자금 담당 직원 한명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횡령을 저질렀다해도 잔액증명서, 금융기관 제출용 공문서, 기타 금융처리문서 등을 모두 위조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내부감사인과 회계법인이 해당 문서를 모두 공유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단독범행이 쉽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매일 자금일보를 만들어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매일 자금일보를 올리고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는 형식인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몰랐다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라며 "자금을 개인계좌로 옮겼다고 하는데 자금 이동과정에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된 회사라면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인증 시스템을 자금관리부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분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도 기업계좌에서 주 거래처가 아닌 개인 계좌로 1880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게 분명 포착됐을 것"이라며 "은행 지점장이나 CFO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사주를 담보로 1100억원을 대출해 주식 투자를 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투자 내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APS홀딩스 155만8039주, 한스바이오메드 18만7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APS홀딩스의 경우 7.64%까지 지분을 늘려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최 회장이 자사주를 담보로 증권사들에서 빌린 1100억원의 만기 상환일이 차례로 다가와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금값'된 딸기, 마트서 저렴한 이유는?

이상기후로 작황 나빠 70% 폭등
유통업체 사전매입으로 가격유지

이상기후로 작황이 나빠진 딸기 값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90% 상승했다. 그러나 마트와 편의점에 놓인 딸기 상품들은 모두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격으로 고객을 맞고 있다. 사전 매입을 통해 계약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가가 책정된 덕분이다.

딸기값 급등에도 주요 유통업체들은 사전매입을 통해 미리 물량을 확보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 신장을 이어가고 있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5일 거래된 딸기 중품 2㎏ 평균 가격은 3만7200원으로 전년 동기 2만1608원 보다 72% 상승했다. 4일에는 평균 거래가 4만13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이탓에 500g 한 팩의 소매가는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대까지 올랐다.

매년 11월경부터 딸기 샌드위치를 포함해 딸기 디저트로 경쟁하는 편의점업계는 사전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편의점 4개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딸기 디저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3% 신장했다. 생딸기를 이용한 상품임에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0월에서 11월사이 있었던 사전매입 덕분이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마트들도 딸기 기획전을 통해 상품을 앞다퉈 내며 딸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마트에서 판매하는 딸기 상품들은 대부분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격을 유지 중이다. 시장 소매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 중인 데에는 마트 납품 딸기 상품의 대부분이 사전계약을 통해 확보된 물량이기 때문이다.

/김서현 기자 seoh@